

‘현재를 즐겨라’ 新 만다라의 탄생

이중근의 카르페 디엠...6월 25일까지 아트파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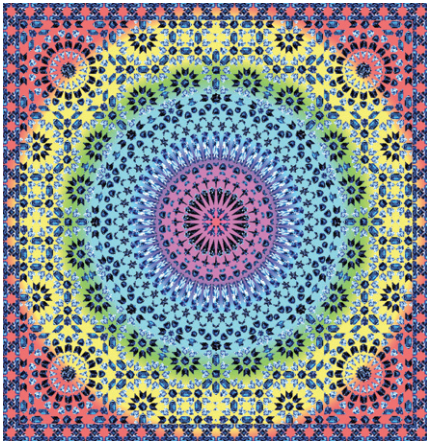
섬유의 패턴을 만다라로 형상화한 이중근 작가의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6월 25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아트파크에서 열린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는 뜻의 라틴어 격언인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지은 송가 중 '현재를 즐겨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작가는 다양한 이미지를 캡처한 뒤 각각을 재배열해 새로운 패턴이미지를 형성하고 이 단위를 반복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시킨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05년부터 작업해온 '오감화(五感花)'의 연장선상에 있다. 만다라 형상의 아름다운 패턴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감각기관인 눈, 코, 입, 귀, 혀의 사실적인 사진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Memeto Mori'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화려한 보석을



이중근의 'Fiirt'

기본 단위로 정교한 패턴을 구성했다. 'Fiirt', 'Intuition'과 같은 신작들은 보석 이미지 패턴의 변주로 구성했다.

이번 만다라 이미지에서 관람객들은 몰입과 명상을 발견할 수 있다. (02)733-8500

정혜숙 기자

가수 이효리 팔에는 '인드라망'이 있다

도법 스님 주창한 '생명평화무니' 타투로 새겨

결그룹 출신 최고 스타이자 반려 동물 보호 활동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수 이효리 씨의 양 팔에 새겨진 타투가 화제다. 이효리 씨의 타투 중 하나가 불교의 인드라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집 '베드 걸'로 돌아온 이효리 씨가 6월 6일 출연한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서 그녀 양팔의 타투가 그대로 방송을 뒀다. 그 중 한 팔에 새겨진 타투는 도법 스님이 주창한 '생명평화 무니'였다.

'생명평화 무니'는 도법 스님이 주도해 창립한 생명평화결사의 로고로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근원이 되며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는 인드라망의 뜻을 담고 있다. 디자인은 안상수 흥대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이효리 씨의 타투 중 하나가 불교의 인드라망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효리 씨는 뚜렷한 종교는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친불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효리를 지난해 4월 자신의 트위터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먹은 밥그릇까지 물로 씻어 그 물까지 마시는 발우공양을 하니, 모두가 이렇게 먹고 난 자리가 깨끗하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소중한 만남(Precious Encounter)'에도 참여 타이틀 곡의 보컬을 맡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야나기 무네요시 공예품 한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서... 7월 21일까지 전시



일본의 공예가 겸 미술평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 <사진>는 조선 공예품을 아꼈던 예술가다. 일제강점기 3·1운동 당시 '조선인을 생각하다'라는 기고문을 신문에 발표했다. 조선총독부의 광화문 철거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으며, 경복궁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할 만큼 조선과 조선의 예술품을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업적으로 한국정부는 고인이 된 그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그의 공예품 수집과 다양한 활동들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7월 21일까지 열리는 '야나기 무네요시' 전에서는 야나기가 평소 수집하고 소장했던 일본 민예관 소장품 139점을 관람할 수 있다.

그는 민중이 만들고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의 '민예론'을 탄생시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야나기 무네요시'는 서양의 근대문예사조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를 일본에 소개하면서 새로운 미학, 특히 공예관을 만들어냈다.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조선, 중국을 거쳐 일본, 대만에 이르렀고 특히 영국인 도예가 버나드 리지와 문화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서양 미술 교류에도

함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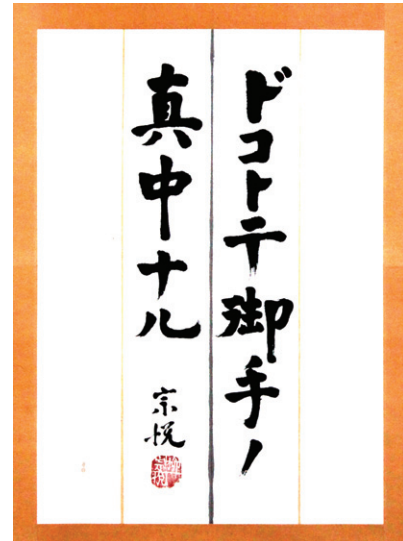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에도시대, 모쿠지키불(허공장보살상, 1801년, 나무)을 발견한 사연은 이렇다. 야나기는 1924년 모쿠지키 소닌이 제작한 불상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유명하지 않았던 모쿠지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탓에 그는 각지를 다니며 모쿠지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모쿠지키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의 자필로 된 자서전을 발견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에도시대 모쿠지키불 등 139점 전시 일제 강점기 활동은 여전히 '논란'

야나기는 모쿠지키 소닌의 불상을 조사하기 위해 교토, 나라 등지를 다니면서 전국의 특색 있는 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했다. 그는 단순한 수공예품에서부터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 에도시대 후기의 공예품까지 광범위한 수집을 한다.

일본 중세부터 도자기 생산으로 잘 알려진 일본 고유의 톱고우(六古窯)중 하나인 단바도자기는 야나기가 만년에 다수 수집하여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단바도자기는 이 천연재료의 재가 내려앉아 자연유가 되어 자연스러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야나기가 1916년 처음 조선을 방문해 부산의 고물상에서 사들인 '철사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7월 21일까지 열리는 '야나기 무네요시' 전에서는 야나기가 평소 수집하고 소장했던 일본 민예관 소장품 139점을 관람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야나기가 쓴 '머디라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적도에 흑유가 흐르는 문양이 있는 호, 모쿠지키불(허공장보살상)

그린 운죽문 황아리'를 비롯 '연잎형 개다리 소반' '담배상자' 등 조선 공예품과 판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복제판화 중 '아담을 심판하는 신'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의 예술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는 차원



이 아니라 그의 공예론이 형성된 과정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야나기 무네요시의 저술만을 주로 접해왔던 한국 관람객들에게는 그의 미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02)2022-06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노래로 중생 위로한 범능 스님 입적

앨범 작업중 뇌출혈로 입원... '나 없iera' 유고 앨범으로 남아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로 위로했던 범능 스님이 6월 13일 입적했다. 스님은 찬불송 '나 없iera' 앨범의 막바지 준비를 하던 중인 6월초 뇌출혈로 쓰러져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스님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매됐던 새 앨범은 유고 음반이 되고 말았다. 새찬불송 1집 '나 없iera'는 '열린 눈' '아미타불 나의 님' '시방삼세 불보살' '천의 손 천의 눈' '나 없iera' 등 11곡이 들어 있다. 고구대 시인, 현장 스님, 용산 스님 등의 시에 스님이 직접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불렀다.

스님은 '현재의 찬불가가 무분별하게 서양음악을 쫓아 기독교의 찬송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불교적 가치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에 1년여 전부터 한국적

정서를 담은 찬불가 작업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이번 앨범과 범능 스님의 사연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다. 두 스님은 평소 공연의 사회자와 가수로 한 무대에 서면서 10년 남게 인연을 이어왔다.

'음악이 추구하는 근본과 수행의 궁극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출가를 했다는 범능 스님은 11장의 앨범을 내면서 민중가수이자 작곡가로 음성교과를 펼쳤다. 한국의 정서와 불교의 정서를 담은 음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불교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스님은 그동안 불교환경연대, 외국인노동자 쉼터 마린, 소암암 환자 돕기 등 자선음악회 등을 열며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새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로 위로했던 범능 스님이 6월 13일 입적했다. 사진은 생전 공연 모습.

만금 갯벌, 부안해피게장 반대농성장, 5.18 추모문화제 등을 찾아 다니며 민중의 고통을 노래로 나눠왔다.

범능 스님은 93년 수덕사에서 출가했다. 85년 전남대 국악학과에 입학해 피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우리소리 연구회를 만들어 진도에 머물며 인간문화재에게 민요

를 배우기도 했다.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광주 출전가' 등 민중 가요 작곡자이기도 하다.

다비식은 6월 15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전남 화순 불지사에서 엄수됐다. (010)3699-7689

정혜숙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의장 석무겸 석만월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혜광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마산총무원장 석범경
전남총무원장 석범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중앙총회
총회의장 석덕오
부의장 석철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실산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원장 석범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원장 석대명
부원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범경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원장 석범승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법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주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인터넷주소 : w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 2총무원 해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총무소 051)893-3346
학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칠 나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